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작품 : 이상배 미카엘 (민락성당 · 부산가톨릭미술인회)

부활 제5주일

제1독서 사도행전 6,1~7

화답송 시편 33(32),1~2.4~5.18~19 (©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후렴)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1.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
2.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3.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제2독서 베드로 1서 2,4~9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음 요한 14,1~12

영성체송 요한 15,1,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깨달음의 눈

오늘 복음에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요한 14:8) 하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섭섭해하십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요한 14:9)

또한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은 들어보실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였다.”(공동번역 요한 2:25) 하지만 당신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요한 2장> 이때부터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고대 종교에서 제3의 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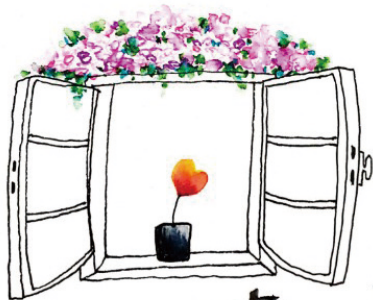
마 한복판에 제3의 눈을 그립니다. 이것을 ‘티카’라고 부르는데, 깨달음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제3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여성들은 이마에 붉은색으로 제3의 눈을 그린다고 합니다. 우리 성당 자매님들이 미사에 참여할 때 미사포를 사용합니다. 여자가 기도하거나 하느님 말씀을 전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했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에 대한 순명 만으로 미사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던 바오로가 다마스쿠스 가까

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과 함께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했습니다. 바오로가 일어나 눈을 뜨려고 하니 사흘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을 받고서야 바오로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 5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부활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바오로 사도처럼 세상일에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만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눈을 “깨달음의 눈”으로 바꾸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윤 벽
프란치스코 신부
초량성당 주임



맛있는 창을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계십니다.

캘리그래피, 손보영 카타리나 (덕계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5.11(월)~12(화)
이윤벽 신부(초량성당 주임)
5.13(수)~16(토)
한상엽 신부(이기대성당 보좌)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5.10(일) 22:00~23:00
진행 : 김유진 세실리아
[MY MUSIC MY STORY]
출연 : 이원용 신부(해운대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월~토 11:00~12:00
진행 : 김현지 리나

5.15(금) 하늘타리 <수녀들의 수다>
출연 : 전혜경 수녀(예수성심전교수녀회)
전로사 수녀(성바오로딸수녀회)
김주영 수녀(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미사가 재개되어 기쁘다.

잘못을 저지르고 하느님 아버지한테 야단맞고 한동안 골방에 갇혀 별 받고 나온 기분이라 할까? 그동안 집에 갇혀 얼마나 불안하고 갑갑한 생활을 했던가. 모든 신자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 축하 미사도 성전에서 봉헌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예수님 부활을 다시 맞은 듯 기쁘다.

조용히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본다. 우리가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얼마나 혹사시켰던가? 하느님은 인간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신 것이리라.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난 이와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확진자들에게는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비록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발생된 일이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울리시는 경종이라 생각하자.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여 마스크를 쓰고 죄인이 된 심정으로 혼자 조심스럽게 가까운 산길을 산책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 있다. 인간과 같이 하늘 아래 사는 생명체인 연약한 식물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듯, 봄이 되니 여전히 새순이 나고 예쁘게 꽃이 피어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강인해 보이는 인간들만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 자연 앞에서도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지금 인류는 세계대전 아닌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가 지구에 퍼져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처참한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느 나라가 바이러스를 유포했다고 따지기 이전에 모든 인간이 일으킨 전쟁이다. 코로나19 전쟁을 일으킨 주범인 온 인류는 지구 등

판에 올라타고 노예처럼 지구를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부리기만 했지, 한 번도 지구와 소통을 하면서 지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구를 오염시켜 놓고 탈피하기 위해 우주공학자들은 우주선을 만들고 화성에 띄워 인간이 안착할 새 보금자리만 찾고 있었다. 그래 '지구가 오염되면 화성에 가서 살지 뭐!' 이런 식으로 화성을 탐사하는 로봇을 신비롭게 제시하곤 했다. 신비로운 세계 화성도 인류가 밭 디디고 산다고 가정하면 오래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월이 되어 들판에 연푸른 잎으로 덮였다. 지구가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이 돌아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른 생각일까? 조신하면서 최선의 양식인 기도에 매달려본다.

오 원 량 카타리나 리치

온천성당 · 시인 ryang0213@hanmail.net



"플립" - 내면의 아름다움을 찬찬히 살피라고

2010년작
감독 : 로브 라이너



겨울나무일 때는 모른다. 옷 벗은 모습에 눈길도 가지 않는다. 꽃이 피고 잎이 돋았을 때야 보인다. 봄처럼 녀의 볼처럼 발그레 붉어지는 복숭아나무라는 것을.

나무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본 것이다. 줄리와 브라이스가 그랬다. 앞집으로 이사 온 브라이스에게 첫눈에 반한 줄리, 그런 줄리가 귀찮고 싫은 브라이스.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누구나 눈부시게 다가오는 첫사랑이 있다. 감독은 자신의 성장기였던 195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했다. 둘의 서로 다른 관점을 차례로 이야기하는 연출이 재미를 더해준다. 저마다 어린 시절 추억을 생각하게 한다.

줄리는 무화과나무 위에서 바라본 풍경을 브라이스에게 보여주고 싶어 올라오라고 한다. 브라이스는 핑계를 대며 거절을 한다. 줄리는 같은 장소에서 바라보는 모습도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란다. 나무가 있는 자리로 이사

올 사람이 거추장스럽다고 자르려고 했다. 줄리는 나무 위에서 울부짖는다. 화가인 아버지는 무화과나무를 그려주며 위로한다. 나무 위에서 본 풍경을 절대 잊지 말라고!

줄리의 가슴에 심은 나무는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브라이스의 할아버지는 괜찮은 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손자에게, 일생에 한 번 무지개같이 변하는 줄리 같은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삶의 연륜에서 오는 철학이다.

영화는 첫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보라고 한다. 그간 겉모습만 보았다면 이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찬찬히 살피라고. 그래야 복사꽃이 겨울을 잘 지내고 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미영 체칠리아 (가톨릭영화제 프로그래머) cecil-e@hanmail.net

← 안드레아

2020년 5월 1일

오랜만에 본당에서 미사
참례하니깐 어때?

안 눈물나더라.

안드레아

나도. 신부님 강론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 적도 많은데

미사 드리는 자체가
감동이더라고.

그런데 신부님께서 이번 부활
판공성사는 '일팔사죄 일팔고
해'로 한다셨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

안드레아

어, 나도 잘 몰라 찾아봤는데,

전쟁처럼 아주 위급한 상황
에서 개별고해가 어려울 때,

모여 있는 교우들이 맘으로
각자의 죄를 누우치고,
다짐하면,

신부님께서 공동으로 죄를
사해주시는 형식이라.

이번 코로나 사태를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거구나...

부활절도 고해성사 못 보고
맞았으니...

안드레아

그렇지.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개별로 고해성사 볼 사람은
신부님 찾아가면 된다더라.

그럼 이 기회에 고해성사 보기
좀 끌고려웠던 것들 다

일팔사죄 일팔고해로 다
보면 되겠다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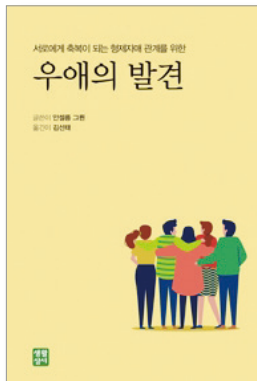
안드레아

양심에 털날라.

그런 내용일수록 고해성사
때 신부님하고 나누면 나
는 더 은혜롭던데...

우애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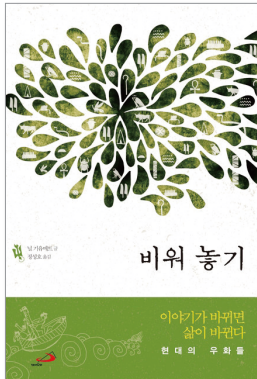
■ 안셀름 그린 지음 ■ 김선태 주교 옮김 ■ 생활성서사 ■ 15,000원



이 책은 오늘날의 형제자매를 이야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먼저 성경 속의 형제자매 이야기를 분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제자매 이야기는 사실 신앙의 있고 없음과 무관하게 우리 인간 모두의 형제자매 관계의 원천이자 본질을 보여주는 형제자매 관계의 '원형'입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는 형제자매의 관계를 재발견하며, 우리 모두에게 우애를 향한 갈망을 일깨워줍니다.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자매에게는 그 관계를 더욱 지지하면서, 현재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에게는 그 고통으로 일생 동안 시달리지 않도록 그것을 지혜롭게 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형제자매에게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비위 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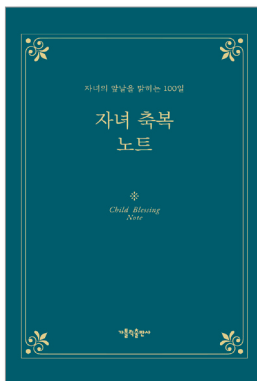
■ 날 기유메트 지음 ■ 정성호 옮김 ■ 성바오로출판사 ■ 15,000원



빡빡한 현대인의 시간은 마치 일주일일 하루처럼 느껴질 정도로 바빠 돌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일상에 지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허무해질 때 이 책은 삶의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하고, 가만히 디딤돌을 내어줍니다. 날 기유메트 시리즈 전작이 그렇듯이 이번 책도 흥미진진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로 한가득입니다. 작가는 우리의 상상 그 끄트머리에서 한걸음 더나가 교리서에서 만날 수 없는 하느님의 진리를 자유분방하지만 간명하고 깊이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과 용기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진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가려진 용기와 접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나와 타인을 사랑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녀의 앞날을 밝히는 100일 자녀 축복 노트

■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가톨릭출판사 ■ 10,000원



자녀를 사랑으로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매 순간 표현하고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앓을 것입니다. 이 노트는 100일 동안 자녀를 위해 마음 깊이 묵상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실천한 일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떠올리며 하루 한 장씩 채워 가다 보면, 주님의 축복 안에서 자녀와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루 한 장 쓰는 『자녀 축복 노트』가 자녀에게는 축복을, 부모에게는 사랑을, 가족에게는 평안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교구
소식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하며... - 신앙 갈등 해소, 미사의 소중함을 느껴...

코로나19로 인해 두 달여 간 중단됐던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지난 5월 1일(금)부터 재개되었다. 신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방명록 작성 및 바코드 인식, 좌석 적정거리 유지하기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미사에 참여했다.

새로 봉헌된 첫 미사에서 많은 신자들은 벅찬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보이며 공동체 미사의 소중함을 느꼈다.



용상



성지



연지



용호



동래



물운대



범일



연양



길천



무계



장유대청



송도



남산



남창



북양산



옥동



사직



전하



수영



범서



방어전



두왕성베드로



만덕



대연

교구 혼인강좌 안내
 · 일요일 15:00~18:50 (매월 1~2회)
 · 부산가톨릭대학교, 울산대리구청
 대상: ①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
 ② 교회혼인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
 접수: 100% 홈페이지 (catholic-marry.or.kr)
 비고: 선착순 50커플, 당일접수 불가
 문의: 441-3501(가정사목국)

기관·제 단체·위원회

꾸르실로 제427차(자매) 참가 신청접수
 · 5.28(목)~31(일) / 접수마감: 5.22(금) 17:00
 문의: (055)388-5734, (팩스)388-5733, 본당간사

민족화해위원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토요 기도모임과 미사
 · 매일 세번째 토요일 14:00 / 문의: 516-0815
 · 가톨릭센터 3층 301호 배움터

빈민사목 후원미사
 · 5.11(월) 10:30 · 문현성당
 주례: 윤희동 신부 / 문의: 467-1045

빈민사목 반송 빛돌레 나눔가게
 깨끗한 의류, 운동화, 가방(새그릇 택배 및 직배가능)
 문의: 542-0242, 467-1045, 010-2886-6467

부산교구 청년사목위원회

▶ 5월호 바로보기

▶ 5월호 진행자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자 자선금 내역 [4월 28일~5월 3일]

염수미 100,000	문혜숙 100,000	이하린 20,000	김연선 5,000	이외순 50,000	김발영 50,000	서영애 100,000
윤 중 160,000	라종숙 50,000	함희영 30,000	이상규 50,000	김정현 30,000	김경도 100,000	이선옥 100,000
이주영 50,000	박정현 50,000	김광숙 500,000	김수정 50,000	이범석 50,000	장희광 50,000	송영숙 1,000,000
정용홍 100,000	윤혜정 30,000	김영화 100,000	최정웅 100,000	하영애 1,000,000	김경혜 30,000	이영 2,000,000
우상범 300,000	김 선 30,000	김문선 30,000	박광수 100,000	김 봄 100,000	유복순 100,000	윤완철 100,000
모 라 20,000	진희장 100,000	손제혁 30,000	유정자 100,000	이상역 100,000	이영옥 100,000	재 선 100,000

자선금 모금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
 * 감사합니다 * 주계: 7,365,000 총 누계: 326,895,500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천주교부산교구 *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 예) 홍길동(남천)

<p>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p> <p>서울공예사</p> <p>법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 631-5006, 631-5007 황인환(가톨릭)·김경자(모니카)</p>	<p>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p> <p>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벳파)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흉조·주름개선</p>	<p>범무법인 울강</p> <p>민사, 형사, 가사, 상속,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각종법률상담 형사·손해배상·가사·부동산전문 대표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717-2570, 010-7455-1031</p>	<p>물 세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p> <p>삼일누수탐지공사</p> <p>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삼일누수 202-3011 이 국 영 (베드로)</p>	<p>포장이사 전문업체</p> <p>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p> <p>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준자동차매매상사</p> <p>매매, 알선, 수출, 말소, 폐차</p> <p>010-3599-6420 승용-화물-외제차 현종삼(요셉)</p>	<p>또 하나의 가족</p> <p>미소드림 방문요양센터</p> <p>거동불편어르신/노인성질환 국비지원(100~85%)/무료신청 우수 요양보호사 택으로 파견 김백영(레오) 방효영(에타다) 010-6483-2707</p>	<p>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p> <p>덕천 길맥외과의원</p> <p>원장. 박 우 일(요셉) 331-8888,8899 덕천역 9번출구 앞 파리버게트 건물 6층</p>	<p>주단, 포목, 혼수, 예단 도소매</p> <p>거 제 주 단</p> <p>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 632-0696 010-9331-6633 진사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화장실 옆</p>	<p>준요양병원</p> <p>재활중점/치매/노인성질환 병원장. 최 준 식(안토니오) 상담, 문의 525-7711 부산 동래구 인락동 433-5번지(충렬대로 372)</p>

해양사목 월미사

· 5.11(월) 14:00 · 가톨릭센터 3층
문의 : 464-2707

파티마의세계사도직 5월 금요일야기도회

· 5.15, 22, 29(금) 21:30~ · 푸른군대 경당
내용 : 고해성사, 성시간, 썰기도
(23:00 미사, 04:00 미사)
문의 : 646-3746(파티마의세계사도직)

로사리오의집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하느님 자비의 시간

· 5.15 부터 매주 금 14:00 성체현시, 고해성사
15:00 기도, 미사 / 문의 : 010-7155-3498

마리보는 전례꽃 및 월미사·특강

· 5.25(월) 10:30 · 부산교구청 2층 성당
문의 : 010-5186-4532, 010-4598-3911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5월 체나콜로 월미사는 취소하오니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재개 소식은 주보에 공지하겠습니다
문의 : 010-8879-2376

울산가톨릭합창단 단원 모집

· 매주 월요일 20:00 · 아음성당 소성전
대상 : 음악을 좋아하는 형제·자매
오디션곡 : 성가중에 선곡, 성가책 지참
문의 : 010-5586-0370(장은미)

하늘공원(양산천주교공원묘지) 셔틀버스 안내

5.9(토)부터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문의 : (055)374-8733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 사무실 7층(14평, 16평, 20평, 51평)

가톨릭센터 무료영화상영회 취소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가톨릭센터에서 진행하는 5월(무료영화상영회)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462-1870, www.bccenter.or.kr

평신도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가정,본당)

가정방문 :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교리가 힘드신 분
본당방문 :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
문의 : 462-0334, 부산가톨릭신학원 홈페이지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5.15(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부곡동 수녀원 미사 없습니다.)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예수성심부산친교회(재속회) 회원 모집

모토 :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
대상 : 만 60세 이하(건진성사 받은 신자)
모임 : 5.11(월)~12(화) 장전동 수녀원
문의 : 010-3857-4708

이태석신부참사사랑실천사업회 후원회 미사

· 5.16(토) 10:00 · 이태석신부기념관 4층
문의 : 241-1601

비아회 은퇴 사제를 위한 미사

코로나19 예방으로 월미사 및 모임 없습니다.
문의 : 010-4557-7348

사랑의성모수녀회 후원가족미사

코로나19 예방으로 미사 취소되었습니다.
문의 : 010-5648-3266, 756-3266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신규약성경 완독피정

· 5.22(금)~30(토), 6.26(금)~7.4(토)
문의 : 010-3340-0201(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평화계곡피정의집 주일학교 여름향심기도캠프

· 7.20~22, 7.28~30, 7.31~8.2, 8.4~6, 8.7~9, 8.11~13, 8.14~16
· 평화계곡 피정의집 / 문의 : 010-3422-7587

제주성지순례 모집

· 6.5~7, 6.16~18, 7.28~30, 8.7~9
· 제주성지 7곳(상지해설)
지도 : 안성철 신부(바오로수도회)
문의 : (064)805-9890(가톨릭사회경제연합)

행복나눔 심리상담실 (명칭 및 이전) 안내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 463-7866
상담 : 월~토 10:00~16:30(명륜역 2번 출구)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타종교인 및 지역민
청소년 심리상담 및 성인 상담 : 토 10:00~16:30
영적 문제 및 고해상담 : 조옥진 신부(상담 박사)
운영자 : 김정애, 전문상담사 및 조옥진 신부

청년특별판 이벤트 5월의 청년 미션

미사 재개 후, 참례한 미사 단체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추천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천주교부산교구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으로 보내주세요도 됩니다.)
- 내용 : 인증샷, 본당, 이름, 세례명, 연락처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1993. 5. 10. 이병만(요셉) 신부님
- 2018. 5. 13. 오수영(히지노) 신부님
- 2016. 5. 14. 제찬규(시메온) 신부님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5.16(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스승예수제의자수녀회	5.17(일) 14:00	부산 분원	010-3021-3842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8715-2846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수시로 가능	부산 요문대 본원	010-6222-7371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온라인 수강생 모집
「배워봅시다 성경언어」 온라인 교육

PC나 모바일로 6개월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교육 : 5/18(월)~11/17(화) <총12주차/6개월>
지도교수 : 엄철호 신부
문의 : 051)519-0492~4, edu.cup.ac.kr

부산성모병원 신경과
기억력 관촬으신가요?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치매검사 받으세요.

대상 : 만 60세 이상 누구나
문의 : 933-7957(신경과)
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

가톨릭센터 교육실
▶ 110석, 60석, 30석 등 4개의 교실 운영교육실
▶ 교육 및 세미나, 워크샵 가능(음향, 영상 시설 겸비)

가톨릭센터 대경갤러리 *가톨릭센터 교육실 및 대경갤러리*
▶ 60평 규모의 전시 전문 공간
▶ 평면, 입체, 사진 등 다양한 전시 가능 *대관신청 수시 접수*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뉴트로한복·동국주단 디자이너 장정애 997.0707 010.9243.5776	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청 원 바른병원 3층	동래교차로(수안동) 독일보청기 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 보조금상담, 교우특별할인, 즉석 A/S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동래구 총령대로 229. 수안역 7번출구 앞 2층	김용기내과의원 [총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 장. 김용기(T. 아퀴나스) 전 부산시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	50년 전통 명신당 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010-3599-7885 646-7885 범일역 1번출구 진시장 방면 약 50미터 거리
부산경남 최대규모 제조업체 가나안보청기 유통마진(가격저렴) 제거 청각학 박사(교수) 맞춤상담 남포점, 서면점, 동래점, 미남역점 교우특별우대 257-3900 김도현 모세 010-7674-2828	동래 광안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교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아베스)	바티카노 성물, 전례용품 전문점 디자인 목주반지(금, 은) 517-4224 010-5488-4224 가톨릭 신학대학 앞	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합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에스텔) 의학박사 611-3339 남천 지하철거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	내일N성형외과 최수중(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정 / 교수 눈, 코, 윤곽, 가슴, 지방성형, 보톡스, 필러, 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아라뽀병원 2층) / 서구청 옆